

2026년 주요국 통상 리스크 적극 대응 및 통상 네트워크 확대 가속화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제53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주요국 통상현안 및 대응방향, ▲‘26년 통상협정 추진계획,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8.(木)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붙임 개요)

금년에도 주요국 수입규제 및 관세조치 등이 지속 확산되고, 글로벌 통상 환경의 가변성이 상시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국 통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통상협정 추진방안을 관계부처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주요국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최근 국내 디지털 입법 관련 對美 통상 이슈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EU·캐나다의 철강 수입규제, 멕시코의 관세조치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하여 통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관련 국익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신남방 및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동반국 중심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집중 확대하고, 메가 FTA를 통한 중견국 간 전략적 연대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디지털·그린 등 신통상 규범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통상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1월 대통령 이집트 방문 후속조치로 북아프리카 핵심국인 이집트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조속히 개시하여 그간 자유무역협정 불모지였던 북아프리카와의 통상협력 교두보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2026년에도 우리가 처한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인 바, 이러한 격랑 속에서 ‘국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통상 리더십

확보를 위해 다보스 포럼 계기 WTO 통상장관회의를 필두로 제14차 WTO 각료회의(카메룬), APEC, G20 등 다자채널을 통해 글로벌 다자 통상 질서 복원과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5620)
		담당자	사무관	노은정 (044-203-5628)



□ 회의 개요

- (일 시) '26.1.8(목), 10:00~11:30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EC룸(서울 중구)
- (참석자) (주재) 통상교섭본부장, (위원) 관계부처* 국·과장급

* 기재부, 외교부, 국조실, 농식품부, 국토부, 과기부, 고용부, 기후부, 복지부, 문체부, 법무부, 식약처, 지식재산처, 금융위, 공정위, 개보위, 방미통위,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 상정 안건

- 주요국(美·EU·캐·맥 등) 통상현안 및 대응방안
- 26년 통상협정 추진계획
- 한-이집트 CEPA 추진현황 및 계획

□ 진행 순서

※ 모두 발언까지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10:05 (5')	모두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10:05~10:20 (15')	안건 보고	담당과장 보고
10:20~11:25 (65')	토 론	참석자
11:25~11:30 (5')	마무리 발언	통상교섭본부장